

배포 일시	2023. 2. 18.(토)		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김진희 (044-201-4208)
			주무관 김대영 (044-201-4212)
보도일시	2023년 2월 2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2. 1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방공항-몽골가는 하늘길, 더 넓어진다

- 3개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 노선 신설 및 공급력 증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16일부터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-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증대시키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- 양측은 2월 18일 오전 11시 30분(현지시간)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과 몽골 민간항공청(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, CAAM) 치메르더르즈 몽흐투야(ChimeddorjMunkhtuya)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항공회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서명식을 가졌다.

<한-몽골 간 항공회담 주요 합의내용>

◆ 국내 지방 3개 공항-울란바토르, 공항별로 주 3회(600석) 신설

- 기존 부산-울란바토르, 주 3회 → 주 6회(1,200석) 증설

◆ 한국-몽골 모든 지점*간 성수기·비수기 취항 확대

- 성수기(6~9월) : 5,000석 → 6,000석(1,000석 확대)
- 비수기 : 2,500석 → 3,350석(850석 확대)

* 한-몽 간 모든 공항에서 운항이 가능하나 현재는 양국 모두 인천-울란바토르 노선만 사용 중

- 몽골은 코로나-19 이전까지 관광뿐 아니라 유학생, 비즈니스, 근로자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던 지역으로,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탑승률(70% 이상)을 보였다.

- 지난해 한-몽골 간 탑승률은 기존 2,500석에 2,500석을 추가 공급한 성수기(6~9월)의 경우 72.6%로 나타났으며, 추가 공급 없이 2,500석으로 운영된 비수기(10월~12월)에도 78.6%에 달하는 높은 탑승률을 보였다.
- 또한, 인천국제공항 및 부산공항 등 2개 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항되던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.
- 이번 한-몽골 간 합의를 통해 향후 새롭게 국내 3개의 지방공항(공항은 추후 지정)에서 공항별로 주 3회*(600석)씩 울란바토르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.
- 기존 운항 중이던 인천-울란바토르 노선*을 6~9월 성수기에는 1,000석, 비성수기에는 850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성수기(6~9월)에는 왕복 주 22회(4회 추가), 10월부터~다음 해 5월까지 왕복 주 12회(3회 추가)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.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합의를 통해 여행 성수기 뿐 아니라 연중 항공 운항이 증가되어 양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정에 합리적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 고 밝혔다.

